

완도군, 8월 7일 '제6회 섬의 날' 함께 해요!

섬 가치 확산 위해 10일까지 개최, 콘서트·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6회 섬의 날」 기본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부시장, 강태욱 행사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시행 계획과 준비 사항 보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8월 8일인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제6회 섬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도와 완도군이 공동 주관한다.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변공원 일대에서 다

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형 전시관 및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8월 7일에는 전야제의 일환으로 박서진, 박지현, 한혜진, 정다경 등이 출연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 축하쇼가 진행된다.

8일에는 '섬의 날' 주제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섬 발전 유공자 포상, 퍼포먼스 등 정부 기념식이 열리고, 하현우, 안성훈, 트리플에스, 권진아가 축하 공연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9일에는 '박명수의 라디오 쇼' 공개방송이 확정되어 노라조, 정준하, 조혜련, 스윗소로우, 페퍼톤스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함께 한다.

10일에는 '섬 주민 트롯 대전'과 폐막식

을 통해 행사의 막을 내린다.

행사 기간 중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섬의 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팝업 이벤트가 열리며, 소안면과 신지면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섬길 100을 뜻하는 '백섬 백길' 걷기대회, 보길도에서는 섬 풍류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섬은 생태, 문화, 관광 등 미래 자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 만큼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더운 날씨 속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쉼터 설치, 그늘막 등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 선정

참전 수당 인상 등 유공자 자부심 높이는 행정 돋보여

강진군이 지난 14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직접 참석해 강진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진군은 국가보훈부의 참전 수당 상향평준화 권고에 적극 대응하며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앞장선 결과로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강진군은 이 권고에 발맞춰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해 평균 지급액 이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진군은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강진군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강진군의 지속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감사패를 수여 받은 후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것들을 우수하게 평가해줘 감사하다"며 "군이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은 결과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강진군은 올해 하반기 보훈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연속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지역사회에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 7월 19일 개장

7월 19일 ~ 8월 16일, 28일간 무료 개방(운영시간 10:00 ~ 17:00)

진도군은 여름철 맞아 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오는 19일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임회면 남동리에 있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야외 물놀이장에는 유아용(수심 0.5m) 1개소, 아동용(수심 0.8m) 1개소, 총 2개의 물놀이장과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 해변용 의자(비치체어) 등의 휴식 공간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28일간 무료 개방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진도군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장 안전 표지판 설치,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연락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욕수 교체, 탁도와 염소 수치 관리 등 수질관리 강화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물놀이장이 어린이들이 물과 친해지며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오락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물놀이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고온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섰다.

군은 폭염 대응 전담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 보유 차량과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의 탈수 및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과 함께 폭염 관리

요령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축의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환기팬, 송풍팬, 면역 강화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 대응 예산 가용 자원

을 활용하여 폭염 대응 예산 2억 8천만원을 8월 이전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장비와 물품이 시급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과 농가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신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지역사회 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22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한 이번 공모에서 화순군은 지역적 특성과 추진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에 화순군은 9월 말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화순군가족센터 내 유

휴공간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육아 공유 물품 등을 갖춘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정보 공유 ▲부모 교육 ▲자녀 돌봄 품앗이 ▲공동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부모들

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희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몸소 체험한 나주시 청소년들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6일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환경 정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들이 각각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감소 촉구,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빛가람초등학교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을 만나고

직접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남 의장은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훗날 나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관내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2023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미래의 주인공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념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